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27호
8월 3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자유대한민국 폭망행위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기독교 지도자 650인의 시국 선언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목사·장로) 666명이 지난 7월 26일(목) 오전 부산시청 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울산·경남 기독교 지도자 660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개탄하며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듯한 행동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NO! 라고 외치고,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밝힐 것과 자유대한민국의 역사 지우기와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통해 침해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부산·울산·경남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일어났다"며 "이제부터 파수꾼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코자 한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권에 반하는 심각한 침해 및 약제에 돌입하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문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신학대학 기숙사에서의 새벽기도를 문제 삼고, 군복들의 병사들에 대한 전도행위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의 개인 신앙행위 금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의 종교 행위를 막고 있다. 이는 앞으로 비탄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국가에서만 가능한 종교탄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기독교 134년의 역사는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왔다"며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의 5만여 교회와 8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660인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운집대를 잡고 지난 2년 동안 국민에게 설명도 함의도 없이 끌고 가는 이 길은 분명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하며 달려 온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 북쪽을 향하는 길이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 대한민국이 폭망

소멸되는 길입니다. 당연히 5천만 국민들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이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부산·울산·경남이하부·울·경) 교회 지도자 660인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이제부터 파수꾼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성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방임하심은 그 원인이 재공자가 바로 저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의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패망의 길로 몰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굳게 서서 NO! 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이 패망의 길을 갈 수 없노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직간접으로 위반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이(奇異)한 대북정책에 자유 대한민국이 소리 없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점수되고 있습니다.

셋째, 최소한의 방어 체제도 허물어 버린 국방정책으로 적화야욕 남침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넷째,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정책에 나라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복 친중 반일 외교 정책은 결국 한미일 삼각 공조와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나라의 안위가 심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여섯째, 자유 대한민국 역사 바꾸기와 왜곡, 자유기로 북한의 역사관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일곱째, 동성애 등 온갖 타락과 비인간적인 욕망들을 법제화하여 나라를 한없이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여덟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권을 억압하는 심각한 침해로 자유 대한민국의 인권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백년대계인 교육문제, 판교언론 문제, 급진 노동 행위, 한심한 공권력과 사법부의 굽은 판결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야의 위원회와 한도

끝도 없는 적폐정산으로 나라를 과거에 매어두고 전진이 없는 통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한국기독교 134년의 역사는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의 5만6천여 교회와 8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애국애족과 역사참여 정신과 애민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상황과 파탄으로 몰아가며, 국민이 알 수도 갈 수도 없는 길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휘둘러 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

2.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체제의 통일 국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

3.문재인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4.비핵화를 위한 각종 선언과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부화뇌동하지 말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5.한치러 무너진 국방을 신속히 재건하고 한미일 공조와 동맹을 무조건 굳건하게 회복하라!

6.경제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일본의 경제 회복을 신속히 해결할 것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지 말라!

7.탈원전 정책과 대강 보 철거 등 국가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8.자유 대한민국의 역사 지우기와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9.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통해 침해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10.국민을 속이며 다음세대를 폭망케 할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중세를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우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일어나 뜻을 같이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5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650인 일동



‘영혼에 해로운 소유와 유익한 소유’



조용목 목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눅 12:13~15)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과 재물의 관계를 비유로써 부연설명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이 부자는 곡식을 저장할 방법과 잔치 배설을 골똘히 궁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에 대하여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영생 얻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한 사건의 기록에는 소유가 많으면 영생 얻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을 인생의 중대 과제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갈망하였지만 막상 자신의 재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영생보다 재물 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큰 부자인 까닭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이런 소유들을 모두 내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과 이런 것들을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라면 주저 없이 영생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울지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

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그 소유의 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권세, 재물보다 영생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이런 일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 것보다 더 기이한 것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소유의 분량보다 소유한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해 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해도 서운해 할 것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해로운냐 혹은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소유의 분량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을 영혼에 유익하게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중동부전선의 철통방어 장병 위로 격려

군선교위원회 을지부대 장병 위로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7월 18일(목)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 직전총회장 임용재 목사 등 9명의 교단 중진 목회자들과 함께 폭폭 찢는 무더위 속에서도 중동부전선의 철통경계를 위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을지부대 장병들을 찾아 위로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격려했다.

부대에 도착한 목회자들은 참모장의 안내로 부대 교육관에서 부대소개 의상을 보고 을지부대가 창설된 배경에는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고구려의 뛰어난 명장으로 삼수대첩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직접 부대명칭을 을지부대로 명명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 결맞게 그동안 을지부대는 막강한 정신력으로 학박한 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단장(박용준 집사)과 함께한 목회자들은 간부시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으며, 시단장은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을지부대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준비해간 위문품 아이스박스과 방풍 커튼 등 3백여



점을 을지문덕 장군 동상 앞에서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곧바로 최전방 00소초에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주시는 최고의 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장병들을 축복했다. 일행은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을 관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장병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다.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 외국인 성도를 위한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성도를 위한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의 6월 의료봉사가 지난 9일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많은 외국인인과 다문화가족 및 병약한 어르신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후 선교센터 내 진료실과 치료치료소를 찾아 아주대학교 병원 의료진과 외국인선교회 회원들로부터 정성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에 따라 X-ray촬영 및 혈액 검사와 물리치료도 실시하였으며, 의사들은 의사의 처방을 따라 조제한 약을 무료로 나눠주며 복용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어 외국인선교회 7월 의료봉사는 지난 21일(셋째 주일)에 실시했다.



저출산극복, 출산·생명존중운동전개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정부에 10가지 정책도 제안해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가 저출산 극복과 생명존중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동 운동본부는 지난 7월 19일(금) 오전 11시 충남 보령 대천중앙교회(담임 최태순 목사)에서 임원 및 시군 본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표회장 최태순牧사는 이날 모임에서 막 12: 28~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소통과 연합을 강조하며 “오늘 우리나라 걱정하는 소리를 듣는다. 정치나 교계도 갈등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소통과 연합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너는 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최근 본부 사업



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산율 0.98% 시대에 지난 6월 3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와 저출산 극복포럼을 열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가 당진동일교회의 출산과 교육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저는 한국교회 실천 방안과 정부에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서울 동부지역 크리스천 리더들이 참여하는 동부리더스조찬기도회를 시작했다. 지난 7월 16일 2차 조찬기도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또한 자살예방, 낙태예방, 생명인전, 생명돌봄 등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과 한국교회 생명존중주일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2019 CTS 주니어 경제캠프’ 개최

주니어들을 미래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캠프

경제 연구, 교육 컨설팅 전문기관인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원장 권형남 경제학박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리더십개발 전문기관인 국제정경리더십연구원(원장 장현일 행정학박사) CTS방송과 함께 여름방학동안 “2019 CTS 주니어 경제캠프”를 갖는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천안 백석대연수원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일(3박 4일)에 이어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했다.

‘회계 전문가가 된 용대리’, ‘성경머니’, ‘돈버는 눈’ 등 2권의 베스트셀러 저자로 KBS 기획재정부, 국민은행, 삼성전자 등에서 경제 특강스타 강사인 손봉석 회계사와 함께 자라는 우리 주니어들에게 적성에 맞는 미래 비전을 설계



하고 뚜렷한 목표설정과 경제개념을 확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미래 리더로 성장하는 3박 4일과정의 기초형 캠프이다.

소통, 리더십, 학습 등 분야 최고의 석세스 코치들과 함께 진행하는 ‘CTS 주니어 경제캠프’는 정밀 작성 감사와 소통 화합 프로그램 등 통해 자신의 장점과 성향을 파악하여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며 잘 할 수 있는 직업, 직무, 장자의 실천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소탐별로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토론으로 성공 학습 습관을 습득하게 되는 획기적인 경제 비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특전(체재) 시장 및 상품 경쟁, 활동 과정 동영상 및 기념사진 자료집, 자원봉사 활동 시간 부여 등이 있다.

이번 CTS 주니어 경제캠프는 단순한 암기식 지식 습득이 아닌 자기 주도형 학습 습관, 구체적인 비전, 뚜렷한 경제관념, 올바른 인성 등을 확립하여 무한한 기능성의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이는 홈페이지(www.cts.tv)나 사무국 02-567-3818으로 하면 된다.

“일본 정부, 수출규제 철회하라”

교단장회의, 제2차 월례회에서 공식성명 발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을 만나고 온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공식 성명을 내고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및 ‘식민 피해자’ 보상을 촉구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회장 박종철 이송희 김성복 목사/이하 교단장회의)는 지난 7월 22일(월)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월례모임을 갖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표회장 박종철 목사(기침 총회장)는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안보협력이 위태롭게 되고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 질서와 동북아 경제공동체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계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게 됐다”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교단장회의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견지하여 양국의 상생 우호관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단장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종교행위 금지조치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회 지도자의 정치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본분을 지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인 주장을 펴는 일을 피하기 바란다.”며 최근 일부 교회 지도자의 편향적인 정치 참여와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가평군조찬기도회

친환경적 가평군 위해 군과 교회 간 협력키로

가평군기독교연합회(이하 가기연)는 가평군조찬기도회를 지난 7월 9일 나루컨벤션에서 드리고, 신천지 등 이단의 활동을 철저히 감제하는 한편 가평군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회와 군이 협력해 나갈 것을 간구했다.

가평군조찬기도회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드린 이 기도회는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가평군 조성과 교회와 관·민이 협력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가평군내 교회의 군의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림산업육성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대 △노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민 귀농 육성사업 추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단지 조성 △한경친화형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안전성 영농서비스 강화로 안전한 농업농촌 만들기 실현 △신팀을 이용한 소득증대 등을 놓고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박주영 목사의 사회로 이필우 장로의 기도, 김희신 목사(예장통합파리선 총회장)의 설교,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이성준 목사) △가평군 발전과 복음화, 군민행복(김범준 목사), △가기연 교회와 목회자(송홍섭 목사), 장은하 자매의 특송, 박제신 목사의 광고, 길병구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국환송지도사 제5기 수료식

투헤븐선교회, 1기부터 5기까지 총 77명 배출

투헤븐선교회는 지난 7월 18일(목) 서울 한영대학교 글로리아홀에서 천국환송지도사 제5기 수료식이 열렸다. 투헤븐선교회 최현정 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수료식은 평생교육원장 손수호 교수와 주임교수 김현수 목사 외 많은 축하객이 6주간의 36시간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손수호 원장의 환사와 김현수 교수의 인사와 환영사가 있었고, 제1기 대표로 조정민 목사 외 4기 임부섭 장로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최우수상으로 유은주 목사, 우수상으로 고민호 목사와 김태관 장로, 투헤븐선교로 강성의 목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주임교수는 시대가 다 사명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5기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간직하자고



했다.

조정민 목사는 부활이 실제로 표현되는 천국환송지도사로 부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앞장서자고 했다. 이어서 임부섭 장로는 지난주 일본에 다녀왔는데 한국보다 장례문화가 10년은 앞선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천국환송지도사로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 이

제는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졸업생들은 오랜 전통의 유교적 장례문화를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장례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 수고하며 새로운 개혁의 일에 앞장서는 주임교수 김현수 목사에게 크게 감사했다. 한편, 동 교육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웃사랑 생명 나눔 바람 ‘술술’

전국 5개 교회서 405명 장기기증

홍성장로교회(담임 양정국 목사)가 지난 7월 14일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에베를 드렸다.

박진탁 목사는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홍성장로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수많은 도움과 나눔을 베풀어 왔지만, 사랑의 속성은 샘물처럼 퍼내면 퍼낼수록 넘쳐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깃들여 있다”면서 “마음에 간직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일어서자. 어디선가 두 손을 뻗고 손잡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웃을 위해 달려가자”고 당부했다.

양정국 담임목사 역시 “근년 교회 표어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처럼 세상 속에 큰 빛을 발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되길 소망한다”며 “이를 위해 생명 나눔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고, 그 결과 230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같은 시각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예수수명교회(담임목사 이광석)에서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에 참여했다.

두 번의 예배를 통해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이광석 담임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의 의미와 그 실천의 중요성을 전했다. 담

임목사의 권면과 함께 장로의 간증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얻은 91명의 성도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경북 울진군 울진산동교회(이학규 목사)와 서울 송파구 예수제자교회(임채근 목사), 제주시 구좌읍 덕천교회(고진석 목사) 등 하루 동안 총 405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한국루터란아워 성서강좌 열어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4회 진행

한국루터란아워(이사장 주대범)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성서강좌 ‘구약에 관한 당신의 4가지 이해’를 중앙루터교회 활동실에서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4회 진행한다.

본 강좌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인하다’, ‘구약은 재미가 없다’, ‘구약은 우리 시대와

무관하다’ 등 구약에 대한 흔한 오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약의 형성사부터 오늘날에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반에 관한 논의를 일괄적 교육이 아닌 만남과 대화를 통해 다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사로 나설 이성훈 목사(기장 명일함울교회)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본 강좌는 참석자당 2만 원의 회비가 책정된 한편, 참석자가 동반하는 비그리스도인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4인 이상이 팀을 이뤄 참석하는 경우 개인별 회비가 반액 감면된다. 등록 문의는 02-318-3346으로 하면 된다.

(사)지구촌기독교총연, 제1회 단합대회 개최

연합회 발전과 지구촌 복음화 위해 기도

(사)지구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노아 목사, 사무총장 이성현 목사/이하 지기총)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소재 홍천테마파크에서 제1회 단합

대회를 갖고 연합회 발전 및 지구촌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예배는 사무총장 이성현 목사 사회로 신임상임회장 한순용 목사

의 기도,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노아 목사는 요 8:1~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설교하고, “예수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신임회장 김원이 목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낙심할 때에 새 힘을 얻는 목회자가 되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7월 18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유주천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재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유주천미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왕상 19:1~10 말씀을 본문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가장 큰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



가 낙심하였을 때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며 "우리도 엘

리아처럼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많은 사명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설교를 마치고 이날 안 수습 후 처음으로 지방회 월례회에 참석한 흥현철 목사를 위해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한 후, 옥경숙 목사(물련동산교회)의 헌금기도와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회무를 처리한 후 순복음유주천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목양하시는 목회 다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지난 6월 24일(월) 오전 11시 시온성순복음교회(담임 유정숙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기도, 지방회 재무 최광자 목사(온누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경기지방회장 김종연 목사(이정부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40:34-38 말씀을 본문으로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 조광현 목사(드림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서기 안재봉 목사의 광고에 이어 경기지방회장 김종연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지방회장 전하세 목사는 직전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각부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경기지방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했다.



제 7차 조찬기도회, 교회마다 뜨거운 기도 당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진동용 목사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회장 진동용 목사)는 지난 7월 20일(토) 오전 7시 신광장로교회를

가졌다. 먼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는 교회의 부흥이 쇠퇴해갈 때 나라가 어려워지기에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국가와 나라를 위한 것을 알고 힘써 기도하기를 당부하였다.

박귀환 목사(동천장로교회) 사회로 시작

한 예배는 최순식 목사(새원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수홍 목사(시온감리교회)가 시 121:1-2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이 시대적 가치관을 이끌어가려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며 "현 교회와 국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서 나가야 함"을 당부하면서 개교회마다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의 사모(김혜린 원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가 국

민훈장동백장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팔 목사(아산택민장로교회)의 사회로 민족복음화와 아가연을 위하여 임기적 목사(배광리교회원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정팔 목사(택민교회), 아산시성사화를 위하여 임정대 목사(돈포순복음교회), 성평등정책과 차별금지법반대를 위하여 장현원 목사(새로운교회), 아산시지도자를 위하여 전희원이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조이철 목사(기성아산성결교회)의 사회로 가진 3부 보고회와 공지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은 현 정국이 혼돈기운데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 못하여 죄송하며 현 난관을 풀어가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다. 이어 박성기 교수의 안보특강에서는 현 일본과 관계를 설명하여 주었고 바르민위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총남도의회에서 7월 19일자로 통과되었는데 막아내지 못함을 사과하고 조례안제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려는데 기도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무료가정법률상담 김혜린 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법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5일(목)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혜린 원장(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것이 알려져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아산노회 생명샘동전교회 박귀환 목사의 부인이기도 한 김혜린 원장은 1988년부터 법률상담전문요원으로 활동하며 30여년간 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지원에 힘써왔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 데에 대해 김 원장은 "생각지도 못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두렵고 떨린다"라며 "큰 상을 받은 만큼 가정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진 지식을 나누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일에 대해 "상담료가 부담되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기만 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혼이나 가정 폭력 등에 놓인 여성들은 물론 채권, 채무, 임대차, 형사사건 등 생활법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상담소가 생명샘동전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어 방문자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하며 간접 선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상담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늘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올해부터는 상담센터가 국비지원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근황을 전했다.



청년봉사선교회 국내선교팀 섬김과 나눔 선교 봉사활동

주민들 전도, 교회당 환경미화, 여름성경학교 진행 등 헌신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국내선교팀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보름 동안 서산, 세종, 충주, 양주, 일산, 대전, 장유, 광주, 원주, 인제, 영종도, 남양, 당진성전에서 각각 4박 5일 등의 일정으로 복음전도와 다양한 국내선교 봉사활동을 벌였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마 3:3)"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국내선교 봉사활동에는 지난 5월과 6월, 7주만에 결

쳐 관련 교육을 받으며 행사를 준비해 온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소속 139명의 청년과 13명의 청년 담당 교역자들이 참가하였다.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각 성전 교회당에서 지체 숙식하면서 축회전도, 노병전도, 학교전도를 통해 구령의 열정을 불사르고 교회학교 성전 꾸미기, 대상전 대청소, 교회당 안팎의 환경미화작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청년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교회학교 교사들과 협력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직접 진행하거나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행사가 되게 하고 주 안에서 각 성전 청년과 교사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다. 특히 구역장들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였으나 결신하지 않고 있던 주민들을 이번 함께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많

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구역장과 청년봉사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깊어지게 된 청년들은 짧은 일정을 아쉬워하면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은혜와진리교회 모든 성전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한마음으로 기원하였다.



강원·태백지역 교회들에 홍삼액 기부



강원동지방회(회장 진장길 목사)는 강원도 태백에서 목회하는 15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홍삼 고 농축액을 기부하였다.

성지순복음교회 진장길 목사의 아들 진일조 씨가 근무하는 회사 늘푸른 농협 회사법인에서 생산 판매하는 홍삼 고 농축액 영육고는 시중 판매가가 10g단위 10개 포장 1개 21,000원 3개 1세트 63,000원으로 총액 5억 6천 7백만 원에 달하는 영육고 9,000세트를 태백지역 태백의 15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부했다.

또, 3,310세트 2억 8천 5백 3만 원 어치를 태백교회들에게 기부하고 이어 강릉, 평창, 원주, 춘천, 영월, 화성에 2,720세트 1억 7천 1백 3만 6천 원 어치를, 월 드비전 강원지역 본부에 2,970세트 1억 8천 7백 1십 1만 원 어치를 기부하여서 목회자 건강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월 드비전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나섰다.



임영광 목사

· 경기지방회 중경회장
· 연천순복음교회 담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슈마이어의 조사에 의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감에 찢려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당했고, 누기는 감람나무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고, 바돌로매는 화형을 당하여 순교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어 순교했고, 유다는 화살을 맞아 순교했으며, 맛디아는 목이 베어 죽음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찢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영광을 찬양하며 주를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로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2.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 8:31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 15:4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

를 “나는 잡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잡지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3.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신 것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서 끊임 없는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빌 2:5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2)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 6:33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딤후 4:1-2에 “하나님 앞과 산 지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행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는 1.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요, 2.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요, 3.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 정

향교안 “이승만, 자유변영 초석”



자유한국당 향교안 대표가 지난 7월 19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 추모식에 참석

해 추모사를 전했다. 향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으신 대통령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다”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가총, 신임 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가총) 제21회 정기총회가 현지시간 오는 8월 19일 오후 12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세명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첫날 기회예배 및 임원회에 이어 둘째날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원단을 선출하게 된다. 신임 회장으로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민승기 목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기아대책 1호 희망대사에 현승원



국제 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7월 23일(화) 현승원(쑤디쑤이 대표)을 기아대책 1호 희망대사로 위촉했다. 기아대책 ‘희망대사’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기아대책을 알리고,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이들로 위촉한다. 현 대표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지식공유 플랫폼 쑤디쑤이를 운영하고 있다.

평지협 회장에 강무영 장로 연임



평신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목)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강무영 장로 연임을 결의했다. 강 장로는 “바이블아카데미 평신도지도자 캠퍼스를 개강하고 3대가 함께하는 찬양제 등을 개최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했다.

논 평

한국교회언론회

무슬림들에게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고?

최근에 여러 대학들이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 학생들을 위하여 자기 학교 내에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에 서마져 이들에게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들에게 이렇듯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 다른 종교를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대학들은 학생들의 지원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 상황 속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이 이런 이슬람 기도처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8년 기준으로 이슬람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1만 명(전체

유학생의 7%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모든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주는 것은 드러내 놓고 ‘종교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슬림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그들의 성지(聖地)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 꾸란 1장을 외우면서, 정해진 동작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라카-Rakat) 새벽에는 2번, 정오에는 4번, 오후에는 4번, 일몰시간에는 3번, 그리고 밤에는 4번을 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17번 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럼 그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 내용은 꾸란 1장을 암송하면서 하는데, 1~6절까지는 알라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7절은, ‘그 길은 당신의 은총을 받은 길이며,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 종교인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또 ‘방황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역시 이방 종교인 기독교나 유대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마련해 준 기도처에서 하는 기도가 타종교에 대한 차별과 저주와 갈등과 미찰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들에게 기도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타당한가?

종교 간 평화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글로벌 시대에 이해와 관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암탉과 닭은꼴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기도처는 얼마나 되는가?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141곳이 마련되어 있다.

그들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 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관용이니, 배려니 하면서, 오히려 무슬림 기도를 통하여 종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의 갈등과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함께,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것이 종교 간 평

화와 우리 사회 안정과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즉각 무슬림 기도처를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이슬람을 뺀, 타 종교인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 유학이나 여행을 가더라도, 자신이 가진 종교행위를 위한 장소제공을 그 나라에 요청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행위를 위한 혜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와 분쟁이 이슬람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는 터이다. 팬스레, 이슬람권 유학생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명분과 이유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 되기를 강력히 정부와 공공기관들과 학교들에 요청한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에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에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증(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초점

깨어 있는 목회자가 알아야 할 반기독교적 법률과 조례들

1. 포괄적 차별금지법 : “성적지향(동성애)/성별정체성(성전환, 젠더)/종교(이슬람·이단·사이비)/인종(무슬림은 문화적 인종)/다양한 가족형태(동성혼 등)”를 ‘차별금지’란 명분으로 강제하며, 궁정적으로 교육하며, 순응하지 않는 국민에게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징역형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률. 반기독교인 것을 보장하고 강제하는 수단

2. 혐오표현규제법안 :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혐오표현’이라며 3년 이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처벌하는 ‘표현의 자유 박탈법’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표현규제법이나 판결이 없다.

3. 인권법안 : 차별금지법의 내용뿐 아니라 군대내 항문성교가 인권이라고 교육될 소지가 있다. 군대의 기강유지와 관련된 활동이 인권침해 신고로 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인권조례 :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구현하는 수단. 차별금지법·혐오표현규제법안이 저지되어 ‘처벌’은 빠져 있어서 무서움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마다 전 국민을 교육하고 5호 담담제 마냥 촘촘하게 규율하

는 거미줄이다. 국가사무인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률이 없는 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이유로 제정중이다.

5. 학생인권조례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교육·실천하게 할뿐 아니라 공부에 장애가 되는 학교내 휴대폰 사용을 보장하고, 보충수업 등을 듣지 않을 것을 권리화하여 학습 성취를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민주·시위·섹스할 권리·페미니즘 등을 교육시켜 가치관을 타락시키고, 시위·집회·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비교육적 조례이다. 뉴욕시 교육청과 대조적.

6. 민주시민교육조례 : ‘다양성 교육’에는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다. 정체성 정치의 이론적 배경을 교육시키는 것이어서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 울산시 교육청 교육자료에는 ‘김일성 수령주의’ 교육도 있다. 현재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어긋난 조례들이 제정되어 시행중인 지자체들이 있다.

7. 문화다양성 조례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할리우드 문화로 인해 개도국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조례는 ‘이

슬람·동성애문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어 위법성이 있다.

8. 청소년노동인권조례 : 노동권은 국가사무(고용노동부)이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상담·홍보하는 것에 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라며 동성애·성별정체성·이슬람·다양한 가족형태·성적자기결정권 등을 교육하며, 센터를 만들어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기부를 받게 하는 등 상위 법의 범위를 벗어나 추진되고 있다. 조례 추진 단체는 민노당·전교조·노동단체·인권단체 등의 연합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로 보도됐다.

9. 성평등 조례 :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야 하는데 일부러 ‘성평등조례’라고 한다. 동성애 뿐만 아니라 성평등은 ‘젠더이퀄리티’의 번역어로 수십가지 성을 보장하는 ‘젠더’를 보장하란 의미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모든 사용자(교회 포함)에게 이를 강요하는 내용의 성평등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동성애 독재 행위 규탄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독재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혐오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이하 동반연)과 그리고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는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조장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인권위가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이하 ‘혐오차별특위’)를 구성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오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하였다. 7월 25일 규탄집회에서 최대권 교수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성애 비판을 혐오차별로 처벌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성명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독재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이다. 특히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인권위의 이러한 활동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차단하는 등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 왔다.

인권위가 출범시킨 혐오차별특위는 그동안의 해외 사례와 국가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성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위해성과 피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하

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고,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시도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혐오차별 주장의 본질이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 논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와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실현하려는 동성애 독재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이하 혐오독대위)를 결성하였다.

동반연과 동반교연, 그리고 혐오독대위는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을 유해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를 비판하는 자유를 지키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미래를 지켜서 대한민국이 동성애독재국가 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선천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과 신앙, 그리고 학문적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성평등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교육청에서 시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

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이라 주장하는 편향된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9. 7. 25.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화제의 신간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현장 교육(제5권)

본서는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교육 시리즈 전 5권 중 5권이다. 주제인 고난교육신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고난교육과 고난의 역사교육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강원도 크기의 지극히 작은 나라다. 인구도 현재 700만 명이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다음 네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성취했다.

1. 유대인은 어떻게 이브리한 때부터 현재까지 4000년 동안 지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는가? 2. 유대인은 어떻게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자녀들을 거주하는 지역의 이방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고 성결교육을 시키는 데 성공했는가? 3. 이스라엘은 어떻게 700만 명으로 13억의 아랍권을 이기는 국가정경력을 가지는가? 4. 또한, 유대인은 어떻게 노벨상 32%를 받았는가?

저자는 유대인의 이 네 가지 기적 같은 성공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35권의 책을 저술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70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로 13억의 아랍권을 이기는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강력한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정신세계를 이르게 하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가 고난의



역사 교육이다.

고난신학적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모세오경 시대의 고난은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광야에서 겪은 고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유대인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노예생활에서 겪은 고난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며 고난이라는 도구로 훈련시키신 것이다.

유대인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에서의 고난을 비교하는 것은 사탄이주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난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이다.

한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의 인성교육 문제를 중 하나는 수직문화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조상들의 고난의 역사교육을 가정이나 교회 혹은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의 역사교육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때문에 한인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이를 분간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7월 1일 발행, 도서출판 위마, 518면, 가격 25,000원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개인·사회·국가가 정체성을 잃으면 비극에 처하게 된다”

종교다원주의 세속화 배경,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회 만들어가야
제2차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 회장단 임원회의

제2차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 회장단 임원회의가 지난 7월 30일(화) 전국에서 참여한 회장단 및 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회관에서 열

려 정부의 잘못된 동선에, 성경을, 전대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경기총회장 최승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전기총

회장 김철민 목사의 대표기도, 전북기총회장 김도경 목사의 성경봉독, 송혜원 성도의 특송, 예하성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전기총 총재 엄신형 목사의 격려사, 인천



기총회장 황규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조용목 목사는 람 3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비극에 처하게 된다”고 전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한밤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와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WCC 종교다원주의와 세속화를 단호하게 배격하

지 못하고 기록성을 상실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며, 사람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게 되어 결국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어진 2부 회의는 운영위원장 임영문 목사의 사회로 지난 제1차 전국모임 과정을 설명하고, 열면 토의에 들어가 3시간여에 걸쳐 열면 토론을 벌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성명서를 채택하고 모임을 마쳤다.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귀환 목사 손 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안흥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지도위원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귀환 목사 손 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주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박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부회장

안흥규 목사 총무 오세현 목사 서기 정진학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재무 박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에(원광대 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플라민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각종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복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복대 연구논문)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괴,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낙태죄 헌재결정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죽이는 것에 앞장선다면?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헌재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죄 문제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 태아 살해에 관한 심각한 것이다.

7월 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사)한국가족보전협회(대표 김지연) 주관으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는 토론회와는 다르게 1,000여명의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이에 따른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상당히 관심을 끌었다.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헌재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죄 문제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 태아 살해에 관한 심각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배정순 교수(프롤라이프 여성회 대표, 경북대 외과 교수)는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의학적으 위험한 시술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여성이 낙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낙태 그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신체의 변화에 물리적, 경제적 힘을 통해 여성의 자궁에 폭력을 개입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홍순철 교수(고대 의대 산부인과)는 ‘낙태에서 생명으로’라는 입장에서 발제하였다. 홍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낙태의 허용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0주까지 인간의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하여,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나 기관에게는 낙태 의료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75.4%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원했지만, 이는 낙태의 허용이나 처벌 조항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낙태죄 문제가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로 나선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과 어떤 규범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낙태를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 관계 속에서 분석하거나 낙태를 여성의 권리 투쟁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화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번의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정치적 수사는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내용 없고 근거 없는 진술을 구사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일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낮은 것으로 보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범죄할 권리도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어서 위의 발제한 것에 대하여, 학부모 단체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전협회)와 의사로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롤라이프 의사회 대표)와 법조계의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와 생명운동 단체의 주요섭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개회식에서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의 사회와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개회사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전협회)의 환영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가 각각 있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이창원 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토론자가 토론함으로 모든 토론을 마쳤다.

앞으로 개정될 낙태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태를 여성 자기결정권으로만 보고, 여성의 몸에 갖게 된 생명체를 이물질(異物質)처럼 마음대로 때어내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거나 낙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양시론

한교연의 “헌 시국에 대한 호소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할 때처럼 치밀하고도 주도면밀한 경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이같은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제대로 대응해 우리 경제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조치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일제가 조선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던 그때처럼 우리의 약점을 간파하고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전 구한말에 사색당파로 나누어 국론이 분열되고 스스로 세계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만한 한 화와 외교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내 자식에게 피해를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것처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는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이 우리의 경제 발전에 큰 도전과 자극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원이 없는 나라가 살길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근면과 성실로 땅 흘려 일해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일본과 경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일본을 꺾고 100년 전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모멸감까지 되갚아 줄 충분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보복 조치에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사태를 키운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국민적 원성이라는 부담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도자를 나무라며 정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재계, 국민, 한국교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립과 반목으로 벌인 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상처와 피해를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재계, 국민,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치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화합의 길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총리는 동남아로,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로 순방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의 자세로 회담과 협상에 임하고, 무능한 대일 외교 라인을 교체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반일 감정을 등에 업고 중국, 북한과의 관계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지금 시국에 정쟁을 일삼을 때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100년 전 사색당파로 나누어 싸우는 바람에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를 빼앗겨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 되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협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10당 대표가 청와대 회담 제안에 조건 없이 응한 것을 환영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셋째, 경제계도 노사가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묵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중동에서 땅 흘린 근로자들의 희생과 헌신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서로한 발자취 양보하고 하나 되어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국민은 과거 IMF 국가 부도사태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금 모으기와 같은 자발적 애국운동으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 국민의 나라사랑과 위기극복 정신을 흔들며 깨우는 기회라 믿습니다. 정부는 이런 자랑스러운 국민을 믿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유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데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경제위기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감정적인 흥분을 가리얏고 냉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이 똘똘 뭉치면 일본이 시작한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에 호소합니다.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란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롬 13:11)이며, 깨어 기도할 때(골 2:38)라고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길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살길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출 17:11)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여 아들의 권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20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글로벌선진학교, 통역봉사자로 지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원봉사로 나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7월 12일(금) 광주 여자대학교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공식 자원봉사자는 8개 분야 2,703명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글로벌선진학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통역업무협약을 맺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통역봉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중·고등학생 20명이 17일 동안 곳곳에서 통역봉사자로 활약하며 ‘민간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의 숨은 꽃’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2011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2015년 세계문인체육대회 그리고 매년 국가조찬기도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의 통역봉사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탁월한 통역 실력과 헌신적인 모습을 선보여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들이 통역요원으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들을 격려자 광주를 방문한 남진석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구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쁨으로 임해주길 바라며, 국제행사의 통역요원으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선수권대회와 수영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로 치러진다. 경기종목은 경영, 다이빙, 수영, 아티스틱수영, 하이드아빙 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으로 194개국 1만3,096명이 참가한다.

저소득 미혼모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국내 저소득 미혼모 및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저소득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실제 저소득 미혼모 가정의 사례를 재구성한 광고를 오는 10월 14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 포털 배너 광고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노출한다. 캠페인명은 ‘작은 쪽방, 연두의 여름 나기’로, 화장실도 없는 작은 쪽방에서 여름을 맞이해야 하는 생후 3개월 아기 연두(가명)와 어린 엄마의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 어린 미혼모가 자녀 양

육시 경험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실제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가 양육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 어려움(34.3%)이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92만3000원으로,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어 육아 및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 모금액은 저소득 미혼모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월드비전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대표전화(02-2078-7000) 또는 포털 광고 배너 클릭을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벌써 목회사역을 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11월 11일 악수동에 주남께서 지명해주신 장소에서 설립예배를 드리고 개척 멤버 0명으로 시작하여 강대상에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아무도 없어서 그냥 앉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문 두드리 는 소리에 나기보니 유해임 집사님이 개척 교회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여 왔다고 하면서 빨리 예배를 드리지고 하여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다윗 가정을 시작으로 문정동으로 이전하고 잠실동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 왔지만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전도회장이 신천지에 빠져져 된 것입니다. 전도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능력전도자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족세트전도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갔더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도의 불볕더위도 아랑곳없이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20여 년 동안 나가지 않았던 전도의 현장에 직접 나가 발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복사집 청년사장님에게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나서 매주 오후 2시에 사업장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출입문에 교패를 붙이고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2년의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통해 30여 명이 등록하여 매일 심방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박영수 목사가 현장에서 보이는 전도시범은 고기를 낚는 어부 같았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이렇게 능력전도를 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도현장 뿐만 아니라 저녁 은사집회에서도 놀라운 일은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가 하면 다리를 절단 권사님이 일어나 성전을 두 바퀴 뛰어가는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잠실상민교회 권미선 목사 가족세트전도 송파구 자부장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YCLA, 제1기 수료식 가져

청소년 크리스천 리더 양성 위해 힘써

청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YCLA(Young Christian Leader 제1기 수료식이 지난 7월 9일(화) 열렸다. YCLA원장 최에스터 교수의 사회로 CLA총동문회장 오수철 박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위원장정현 일 박사(신명당나루교회 목사)가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1기에 참여한 크리스천 리더 20명은 각 교회와 기관에서 추천된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됐다.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본인이 원하는 각계각층의 크리스천 전문가들에게 코칭과 멘토링 과정이 진행되며, 지속적인 인턴십 과정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갖춘 일터사역자로 세워갈 예정이다. 최에스터 YCLA 원장은 “이제 크리스천 청년 리더들이 깨어나, 교회의 공공성과 공공회성 회복을 위해 크리스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일 박사는 “이번 제1기 YCLA는 그동안 정치, 경제, 언론, 사회문화 등 12대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크리스천 리더를 양육해온 G12MVP 사역에 연속

된 것으로, 보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리더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우리 교회와 사회, 국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워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11월에 단기 선교(18일-23일) 실시한다

세션협 제139차 월례회 연합교회에서 개최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션협) 제139차 월례회가 7월 25일(목) 오전 11시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70 소재 연합교회(전순임 목사)에서 개최하여 회부를 처리하고 선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1부 예배는 서기 진인숙 목사(지구촌교회)의 인도로 회계 송민자 성육자 목사(참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최미영 목사의 특송, 증경회장 오광근 목사

(새빛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요일 1:7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행함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둘째, 진리 안에서 행하라. 셋째, 그리스도가 행한대로 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인숙 목사의 봉헌기도, 천근화 장로(영원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스나리와 민족을 위해서, 스세션선교협의회를 위해서, 스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장 한규섭 목사(삼동제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황정희 목사가 회원점령 15명 참석,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양보고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필리핀에 체류 중), 임양회계보고는 전종호 전도사, 회계보고는 송민자 목사, 중무보고는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 전국 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주제 : '거룩한 능력을 덧입자' (요 17:17)

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교회



임용재 목사
교단 직전총회장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용덕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영동제일교회



김인한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청신교회



김양인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목양제일교회



정의섭 목사
교단 부총회장
한소망교회



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준비위원



윤경현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보은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교목국장
대림별교교회



임형순 목사
신학교리국장
아멘교회



이경진 목사
교단 총무
다사랑교회



오세준 목사
청년국장
순복음침례교회

일시 2019년 8월 19일(월) ~ 20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 (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주관 신학발전위원회, 신학교리국

대상 총회 산하 전국 신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원

회비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1077-0100-11, 임형순-신학교리국 국장)

문의 및 연락처

신학교리국 국장 임형순 목사
(010-9115-4727, zoollia@hanmail.net)

광고 사항

1. 참석인원(교수, 신학생)을 2019. 8. 5(월)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명찰 및 숙식준비)
2. 접수는 2019. 8. 19(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교소개와 장기자랑을 함께 합니다.(각 신학교에서는 수련회 전에 미리 준비)

첫째 날(8월 19일 월요일)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12:00~13:00	등 록	
13:00~14:00 (60분)	개 회 예 배	찬양 : 총회신학교 사회 : 이경진 목사(교단 총무) 기도 : 윤경현 목사(신학발전위원장) 설교 : 신재영 목사(교단 총회장)
14:10~16:00(110분)	특 별 강 의	사회 : 임형순 목사(신학교리국장) 강사 : 조용목 목사(정책위원장)
16:00~16:10	사 진 촬 영	
16:20~17:50 (90분)	신 학교 소 개 및 장 기 자 랑	진행 : 변원식 목사(창조교회)
17:50~19:00	저 녁 식 사	
19:00~21:30 (150분)	영적 능력을 덧입자	찬양 : 예하성 전북신학교 사회 : 광주신학교 교수 헌금 : 총회신학교 학생회장 강사 : 임용재 목사(교단 직전총회장)
21:40~23:00(80분)	기 도 합 주 회	사회 : 오세준 목사(청년국장)
23:00~	취 침	전국신학교학장 및 교수 간담회

둘째 날(8월 20일 화요일)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06:00~07:00	자 유 로 운 금 식	빵, 시리얼 자유취식
07:00~08:00 (60분)	말씀의 능력을 덧입자 (성경의 무오성과 묵회)	사회 : 윤경현 목사(신학발전위원장) 강사 : 김용덕 목사(중경총회장)
08:00~08:30	산책 및 개인정비	
08:30~10:00 (90분)	사랑의 능력을 덧입자 (목회자와 인격)	사회 : 임형순 목사(총회신학교 교수) 강사 : 김인한 목사(중경총회장)
10:10~11:40(90분)	신한 능력을 덧입자 (열매맺는 목회를 위하여)	사회 : 오세준 목사(예하성 총회신학교 교수) 강사 : 김양인 목사(중경총회장)
11:4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폐 회 예 배	찬양 : 예하성 부산신학교 사회 : 이경진 목사(교단 총무) 기도 : 임형순 목사(신학교리국장) 강사 : 정의섭 목사(교단 부총회장) 헌금 : 예하성 광주신학교 학생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신학발전위원장 목사 윤경현
총 무 목사 이경진 신 학교 리 국 장 목사 임형순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이 기쁨 이 행복 이 은혜를

세월의 끝자락을 잡고 한 30년을 되돌려 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섬 솟는 솟구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음은 틀림없지만
날마다 고뇌요, 태산같이 덮쳐 오는 걱정과
현실 앞에
꿈도, 희망도, 사랑도 크게 한번 느껴보지 못한 채
허망한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도
느껴보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찌 행복했던 지난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머리는 백발에, 육신은 오후 2시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보고 계시니
내가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얼굴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은혜를 그 누가 흉내 내며,
뺏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한번 더 영광, 영광을 돌립니다.

중국 출장길에 씀
이제인 장로

성명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최근 불거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소재수출 규제
는 현 정부의 '정치공작과 반국가적 정치선동'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일본의 경제보복' 으로
현 사태를 보도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좌파정
치권의 단골메뉴인 반일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인식은 나라를 빼앗긴 과거
를 반성하고 되풀이 말자'는 역사교육 부재의 비
탕에 원한을 역사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돌아나
는 탓이다.

나라를 빼앗긴 단초가 된 미국과 일본의 가츠라
테프트 협약을 불러온 고종의 우물 안 개구리 식
리더십이 또다시 반복되는 한심한 상황을 자녀들
이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로 되보 할 일만 남는다.

정치 선동하는 최근의 한일관계, 나라를 위태롭
게 한다!

최근의 한일관계 갈등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
정' 을 대법원 판결로 대놓고 파기한 파행적 외교,
법적 조처에 대한 일본의 불신이 원인이다.

제2의 이완용이란 비난을 감수하면서 대일 청
구권자금을 국가발전 마중물로 삼아 어느 나라도
성공못한 경제기적을 이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을 부정하는 행위의 정치적 관철! 또 국제사회 경
제제재에 앞장서야 할 나라가 인퐁이 다른 행동으
로 신뢰는 커녕 의심을 사고 있으니..

급기야 일본은 대한민국을 국가안보에 위협주
는 나라로 간주하고 그동안 우호적 관계국가에게
주던 경제적 혜택을 거두어들이라는 조치를 취하
는 것에 우리는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반성
해야하는지 냉철히 판단해야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고심한 전 대법원장의 고뇌를 정치
적 탄압으로 몰고 간 현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니 속히 반성하길 촉구한다.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과거 지향
적 반일프레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
뢰를 받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국민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패권 장악을 위
해 교육을 오염시키는 뻔뻔한 행태를 강화하고 있
다. 절대 안된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다
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북핵 사태의 위중한
국면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와 광목적 민족주의를
벗어난 올바른 세계관 교육에 매진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일프레임 전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7월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곽일천 전 서울디지털교 교장

사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북한은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직접 공약
하고 관문점에서 거듭 약속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
변인은 연합훈련이 실행될 경우엔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과 리용호 외무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상황 설명까지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
연습(CPX)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사상 첫 미·
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2 성명은 북한의 체제 보
장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핵 동결론이 공공연히 나오는 와중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사실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
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 했
다며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협상용 주
장이 아님을 내세웠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간 심
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가 늦어질수록 그
만큼 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확고해야 하

고 한·미 훈련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훈련은 축소되고 방어능력의 하절을 드러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가 북을
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일본의 물나에 대해서도 분별력과 현
실감을 가지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닥친 위
험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과 외교적 노력을 강
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
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의 성령님
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
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9, 20).

중국과 미국의 화웨이를 둘러싼 대결,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제, 한국에 외교정책과 경제정
책에 다가온 큰 어려움 앞에서 악한 세상을 이길 한평
함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신학교는 동성애 문제에 단호해야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장로회
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이하 장신대)가 학교 예배 시
간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참석했으며,
예배 후에는 예배당 안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어 퍼포먼스를 한 학생 4명에게 내렸던 징계에 대하
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장신대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의 7개 신학대학에 성
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그야말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
리했다. 그리고 이를 각 신학교 정관에도 명시해야 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
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국가나 권력에서 방해한다면, 한국
교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소수자나 약자가 아닌, <문화 마
르크시즘>을 통한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사탄의
계기로 본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
정치이며, 성 이데올로기이며, 성 혁명인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인 것이다.

신학교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단호해야 한
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탄의 교묘한 전술전
략을 간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
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2:17) 그러나 사탄은 “절코 죽지 않으며, 눈도 밝아져 나
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창 3:4-5)

‘표음’이니, ‘사람’이니, ‘혈’로 금지’니 하는 언어유
화에 간하지 말고, 성경명령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
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화원을 굳건
히 지키며, 그 명에 세워져 나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
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취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고혈압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작용,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떼연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썬 또는 썰어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를 접어든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특강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9월 24일(화) 1박 2일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031-298-3739)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문의 | 국장 백영자 목사 (010-3638-0120)

계좌번호 |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회 비 | 일만원(접수시 입금)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 고전 3:9 -

2018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8월 23일(월)	8월 24일(화)
07:00		
08:00		식사
09:00		폐회예배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개회예배 설교 : 신재영 총회장	곤지암 화담숲으로 출발
16:00		도착 후 점심식사
17:00	제1강의 강사 : 조용목 정책위원장	↓
18:00		화담숲 거닐며 힐링을~~~
19:00	저녁식사	
20:00	제2강의 & 기도회	
21:00	강사 : 김용덕 증경총회장	
22:00		

모시는 글

할렐루야

전국 각지에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 헌신하시는
동역자인 여교역자 여러분!

오는 9월 23~24일 (1박2일),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년 중 9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한창 무르익는 절실의 계절인데다가,

우리 여교역자 여러분을 만나 뵙는 절기와도 같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때’가 9월이었으며(학 2:10),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때’ 또한 9월이었습니다.(스 7:1)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우리 전원성전에 모두 오셔서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빌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